

대행 스님

그냥 이유를 붙이지 말고 불을 켜서 밝게 사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놈은 죽어서 꼭 소가 될 거야. 미련스럽기만 하고 말이야." 이러고 항상 그랬는데 아, 딴은 죽어서 소가 됐답니다. 소가 돼서 자기네 그, 외양간이라 그러죠? 외양간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 새끼가 그 어미한테는 안 가고 자꾸자꾸 그 주인 부부한테 자꾸 비비고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아이, 매물을 주면 먹지 않고 말입니다, 아, 콩이나 이런 거 쒀서 다시 줘야만이 먹고 이러니 아,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셔서 그 스님한테 여쭤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는 당신이 죽으면 미련스럽게 소가 될 거라고 그러던 아드님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는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콩하고 짚하고 썰어서 삶은 거 있죠? 여물!

그래서 여물을 쒀서 먹이는 데도 새끼와 어미, 그것이 다 같이 먹도록 그 스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거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 봐야 알 바가 있을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그냥 소의 모습을 가졌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수 있나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하더라도 소 허물을 썼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애탄지탄하고 사람들한테 발버둥이 치고 하소연을 하고 음매음매 하고 애를 써도 그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전연 다른 세계입니다.

이렇듯이 사람도 오늘 이렇게 사람으로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이란 본래 체가 없는 거라, 즉 말하자면 원자에서 입자가 수만 개로 퍼지듯이, 또 하나로 뭉쳐지듯이, 벌어지고 뭉쳐지고 이렇게 작용을 무수히 하고 지금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듯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아까도 암흑 얘기 했지만 그렇게 진화돼서 해 나온 그 과정을 증명하려면 모두 여러분의 몸속을 보십시오.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업 선업이라는 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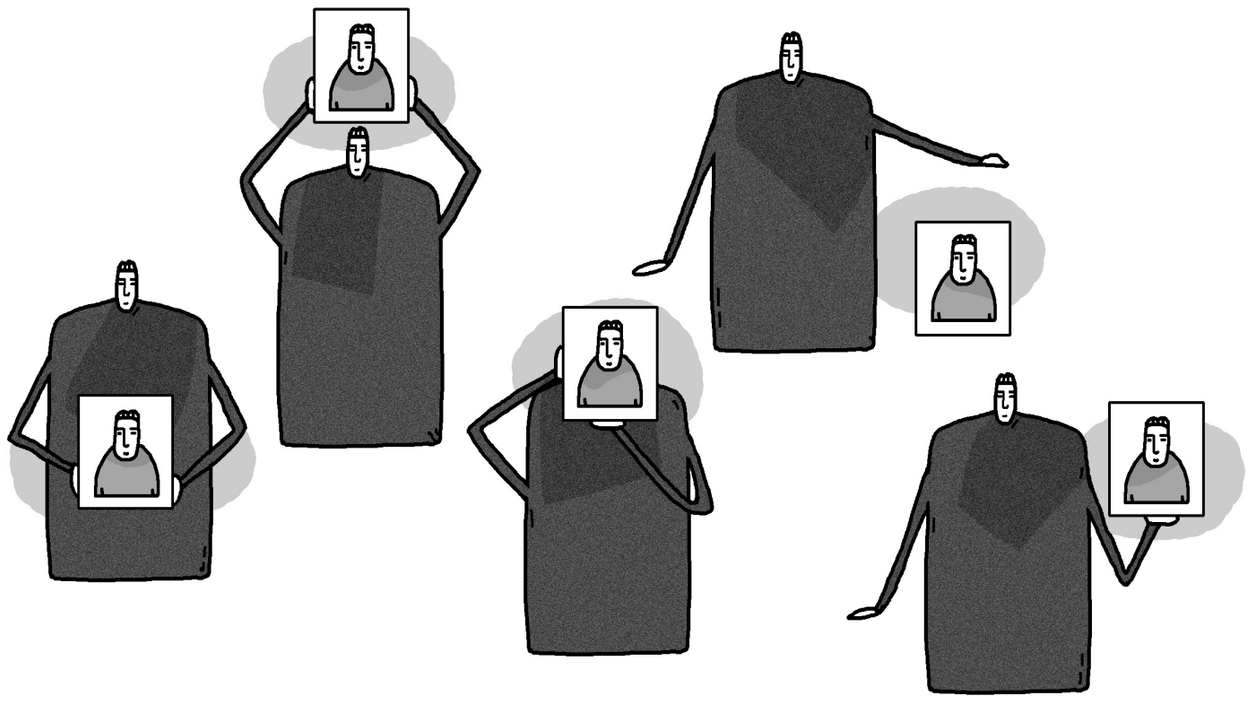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이 한마음, 이 도리를 공부한다면 이 마음이 '야, 네 몸인데 네 몸을 건강하게 끌고 다녀야지.'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입력이 된다면 그대로 그 마음이 전체에 입력이 되는 것이죠, 의식들이. 그래서 '아, 나를 몰랐는데 이게 내 집이고 내 몸이래.' 하고선 모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뇌입니다. 마음이 바로 한 찰나에 두뇌로 올라가서, 즉 누진, 바른쪽 왼쪽의 그 작용의 핵심이 바로 누진입니다. 누진이 바로 사대로 통신을 합니다. 이 두뇌로 올라가서 통신을 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알려지는 그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파워를 일으켜서 잘못하면 살이 굳어지고 세포가 굳어지는데, 제 집이 없어지거든요. 제 집 망하는 거를 누가 좋아합니까. 제 집이 망그러지는데 누가 좋아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의식들이 들고 나면서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유전성이든지 다 끌어들여서 파워를 일으키는데, 좋은 것도 끌어들이고 나쁜 것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이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고 돌아가는 것을 만약에 주인공의 그 주장자를 완벽하게 세우고 공부를 한다면 모든 게 그냥 삽시간에, 그 모두가 바깥으로는 털구멍을 통해서 보살의 행으로서 화하게 되고, 안으로는 안대로 보살의 행위로서 화하게 되니까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작용이 엄청난데, 하나도 작용 안 하는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지구의 모든 것도, 물과 산도 이 들도 움죽거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 인간의 수명은 70년 80년이지만, 그것들은 이천, 만, 십만 이렇게 수명이 길 뿐이죠. 이러한 법의 도리를 부처님께서는 49년을 설했고 여러분 앞에 그 길을 인도하면서 "절름발이로 살지 말아라. 또는 눈먼 장님으로 살지 말아라. 귀머거리로 살지 말아라." 이럭하고서 모든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게 홀로 높으니라. 홀로 높으니라.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없이 전부 홀로 높으니라. 대장간 일 하는 사람은 대장간 하는 데서는 제일 높고, 또는 뱃사공 일 하는 데서는 뱃사공이 제일 높고 모두가, 농사짓는 일 하는 데서는 농사짓는 농부가 제일 높고, 아이, 모두 홀로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 하는 사람이 저거 못 하고 저거 못 하는 사람이 이거 못 하니까 모두가 제가끔들 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 이런다면 그냥 믿는 것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가 행동, 말, 뜻 이 모두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속이 상한다, 뭐,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이러더라도 말로 하고 몸뚱일 잡아 가지고 때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해와 바람이 싸운 얘기도 아시죠? 이 마음이라면, 마음을 붙잡아야 몸뚱이도 오지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자꾸 욕을 하고 "너, 아이구, 요놈의 새끼! 너는 배울 시기에 못 배우면 깡통밖엔 못 차." 이러면서 갖은 욕을 하면서 불안을 격화시키고 온통 집안 식구들을 다 그냥 북북북북 긁으면 화를 내고 인제 이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입력이 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한 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아주.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를 막론해 놓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추우니까. 보금자리가 너무 쌀쌀하고 추우니까 말입니다. 따뜻한 데로 찾아가느라고 자꾸 달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라 하면 그래도 가정에서도 어떠한 것이든 모든 거를 다 거기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이라도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같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밝게 살 수 있어요. 그건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 말을 할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사람이 자식이 하도 그냥 나가서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려서는 그저 보름 안 들어오기 예사고 열흘 안 들어오기 예사고 학교 가지 않는 것이 그냥 뭐, 다반사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부모를 자꾸 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뭘 자꾸 훔쳐 내간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도 뭘 훔쳐서 경찰서에서 자꾸 부르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학교도 퇴학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부모가 하도 그냥 애쓰다, 버린 자식으로 내놨다가 이 선원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의 주인공과,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이 둘이 아니요, 또한 부모다 자식이다 하는 바로 인연줄이 있다. 인연줄이 있기 때문에 둘이 아

☞ 22면으로 계속

